



소개

랑데부 슈팅 스타

마법 같은 셀레스티얼 컴플리케이션의 재해석

주요 특징:

- **탁월한 장인정신:** 메종의 수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다이얼—110 시간에 걸쳐 9 가지 래커 컬러로 완성된 핑크 작약과 80 시간에 걸쳐 12 가지 컬러로 완성된 블루 버전
- **놀라운 워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 총 335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인하우스 칼리버 734 가 구현하는 신비로운 천체 현상
- **리미티드 에디션:** 각 버전은 단 10 피스의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

2022 년,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은 랑데부 컬렉션을 위해 매혹적이고 독특한 새로운 워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과 슈팅 스타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025 년, 메종은 다이얼에 작약을 정교한 수작업으로 페인팅하여 로맨틱하고 여성스럽게 재해석한 컴플리케이션을 공개합니다

밤하늘의 신비로움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

워치메이커들은 오랜 세월 밤하늘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물론, 별과 행성의 규칙적인 움직임이 시간 측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천체 현상과 달리, 별뿔별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찰나에 불과한 존재이기에 가장 로맨틱하고 신비로운 천상의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별뿔별은 엄밀히 말해 별이 아닌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타오르는 암석 잔해들로, 특정 시기와 적절한 조건에서만 관측 가능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반짝이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희귀한 현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고,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은 그 신비로운 마법을 시계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셀레스티얼 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메종의 오랜 유산을 이어받아,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은 완전히 새로운 셀레스티얼 컴플리케이션 제작에 나섰다, 구상부터 개발, 생산까지 전 과정을 매뉴팩처 내부에서 거쳐 전례 없는 메커니즘을 완성했습니다. 손목 움직임으로 작동되는 별뿔별은 다이얼 위에 무작위로 등장합니다.

별뿔별의 마법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공예 예술

랑데부 슈팅 스타는 18K 핑크 골드(750/1000)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매혹적인 두 가지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인하우스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에서 갈고닦은 기술을 그려내는 캔버스와도 같은 다이얼은 3 개의 디스크가 중첩된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명한 사파이어 글라스로 제작된 세 개의 층 중 최상단은 수작업으로 래커 페인팅되었으며 풍성한 작약으로 장식되어 별뿔별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해석에 따라 모든 윤곽선을 자유롭게 손으로 그려내는 섬세하면서도 정교한 작업입니다. 이후 미니어처 페인팅의 세밀한 과정은 디스크 뒷면에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의 앞으로 이어집니다. 앞이 완성되면 디스크를 뒤집어 앞면에 꽃을 그리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핑크 작약에는 9 가지, 블루 작약에는 12 가지 래커 컬러가 사용되며, 래커가 매우 빨리 마르기 때문에 다이얼은 굽기지 않고 한 번에 페인팅 되어야 합니다. 아티스트에게는 두 번째 기회도, 실수할 여지도 없습니다. 또한, 장인들은 작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전기 방지 가운과 완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합니다. 작은 오염이라도 발견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털은 작업 전 과정에 걸쳐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다이얼 세팅과 같은 공정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다이얼의 앞뒷면에 걸쳐 완성된 페인팅은 디자인에 깊이를 더하고, 꽃의 정교한 디테일과 꽃잎의 섬세한 묘사는 마치 사진처럼 사실적인 효과를 연출합니다.

사파이어 다이얼 아래에는 마더오브펠 회전 디스크가 두 번째 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디스크는 다양한 블루 톤을 여러 겹으로 에어브러시 처리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만들어 냅니다. 마더오브펠의 은은한 광채는 미묘한 컬러 변화를 만들어내며 시각적 깊이를 더합니다. 디스크 한쪽에는 레이저로 컷아웃한 별뿔별 실루엣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동 시 디스크가 회전하며 다이얼 상단을 가로지르는 곡선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 컷아웃 실루엣을 통해 세 번째 층을 드러냅니다. 눈부신 그라데이션으로 마감된 실버 메탈 소재의 고정 디스크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빛의 섬광처럼 보이는 시각적 착시를 연출합니다.

별뿔별의 궤적을 보여주는 사파이어 글라스 다이얼에는 3/4 원형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베젤은 다이얼 쪽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브릴리언트컷 다이아몬드 원으로 장식되었으며, 랑데부의 디자인 코드에 따라 러그 윗면과 크라운 상단 역시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었습니다. 핑크 작약 모델은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을 갖추고 있으며, 총 625 개의 브릴리언트컷 다이아몬드(약 6.31 캐럿)가 시계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폴리싱 처리된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과 함께 선보이는 블루 작약 버전은 189 개의 브릴리언트컷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케이스 및 다이얼을 갖추고 있으며, 타임피스 전체에 걸쳐 사용된 다이아몬드는 약 1.47 캐럿에 달합니다.

놀라운 위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을 표현한 메커니즘을 제작하는 것은 위치메이킹에 있어 매혹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수학적 원리를 따르는 위치메이킹 세계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뉴팩처에서 쌓아 올린 190 여 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거 르쿨트르 엔지니어와 위치메이커는 별뿔별 메커니즘을 통합한, 335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인하우스 오토매틱 칼리버 734 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으로 무작위로 나타나는 우주 현상을 담아내는 놀라운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뛰어난 기술과 그랑 메종의 예술적 감성이 어우러진 랑데부 슈팅 스타는 밤하늘의 마법을 새롭게 해석한 타임피스입니다. 약 500 개의 별이 밤하늘을 수놓듯 작약 버전 다이얼 위에 펼쳐진 이 천체 풍경은 페인팅이 아닌 섬세한 전사 기법을 통해 정밀하게 구현되어, 각 타임피스에 깃든 섬세한 디테일과 장인정신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풍성하면서도 섬세한 형태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작약은 여러 문화권에서 번영과 풍요, 깨달음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꽃을 선택함으로써, 위치메이킹 컴플리케이션이 지닌 낭만과 아름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대화됩니다.



상세 정보

랑데부 슈팅 스타

케이스: 핑크 골드(18K – 750/1000)

크기: 36mm x 11.11mm

방수: 50m

메커니즘: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734

기능: 시, 분, “슈팅 스타” 디스플레이

파워 리저브: 70 시간

다이얼: 다이아몬드 및 미니어처 페인팅 사파이어 크리스털

다이아몬드: 189 개의 브릴리언트컷 다이아몬드(~1.47 캐럿)

스트랩: 교체 가능한 폴딩 클래스프를 장착한 블루 앨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6424C2

랑데부 슈팅 스타

케이스: 핑크 골드(18K – 750/1000)

크기: 36mm x 11.11mm

방수: 50m

메커니즘: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734

기능: 시, 분, “슈팅 스타” 디스플레이

파워 리저브: 70 시간

다이얼: 다이아몬드 및 미니어처 페인팅 사파이어 크리스털

다이아몬드: 625 개의 브릴리언트컷 다이아몬드(~6.31 캐럿)

브레이슬릿: 일체형 폴딩 클래스프를 장착한 핑크 골드 및 다이아몬드

제품 번호: Q36423C3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